

‘리스크’에 갇힌 증권사 3분기 실적... “4분기 부담요인 여전”

주요 5대 증권사 영업익 31.15% ↑
매크로 불확실성·부동산 PF 미해결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주요 증권사들이 악화된 영업환경 속에서 지난 3분기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4분기에는 불투명한 증시환경과 대규모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실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3분기 영업 이익은 총 9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5% 증가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20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늘었다.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고객자산의 순유입이 이어져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어려운 증시 상황으로 전분기 대비 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수는 소폭 줄었으나, 7조9000억원의



금융사·증권사가 다수 위치한 서울 여의도 금융가. /뉴시스

고객자산 순유입을 통해 리테일 전체 고객자산이 287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와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부문의 업계 지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2.9% 증가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0.9% 감소했지만, 브로커리지 이자는 8% 늘었다. 자산관리는 8.4% 감소했고, IB는 2.3% 증가했으며, 운용부문은 흑자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은 위탁매매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어난 1731

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해외대체투자 관련 대규모 손실이 올 3분기 현실화되면서 지배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8% 감소한 769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1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2.9% 증가했다. 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1218억원,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 267억원을 기록했다. IB부문은 DCM(채권자본시장), ECM(주식자본시장) 등에서 다수의 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일반회사채 및 여전채 대표주관 1위를 달성했다.

키움증권의 영업이익은 브로커리지 수익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한 2719억원을 기록했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실적은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상이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3분기 실적은 키움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나머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

셋증권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스크 관리 문제로 이들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사태로 4000억원의 미수채권이 발생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등의 부담 요인이 여전하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기간으로 대규모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상각 등을 완료하겠지만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내외 보유투자자산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자산 연체율, 채무보증 비율, 조정 유동성비율 등 PF 관련 주요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으로 안정성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과두 “4분기 상승세 본격화... 발주 재개 중”

실적 숨긴 상장 의혹에 장문 해명문
시장 회복 조짐... 목표 성과 달성할 것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과두가 실적을 숨기고 상장했다는 시장의 의혹에 대해 장문의 해명문을 내놨다. 4분기 저점을 지나 내년 상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관망이 보인다.

13일 코스닥시장에서 과두는 0.37% 반등한 1만9040원에 거래를 마치고,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과두는 지난 3분기 누적 매출 180억원으로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15%도 달성하지 못하며 2거래일 연속 주가가 45% 이상 급락했다. 시총도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기 상장이라는 의혹을 키웠다.

과두는 이날 오전 ‘과두 현황에 대하

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장문의 해명을 통해 “갑작스런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다”며 “3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두는 실적 부진이 모두 업황의 문제일 뿐 경쟁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해명문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NAND 및 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최근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 때문이며 기존 고객사들이 과두 제품을 타 제품으로 교체하였다는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명문에 따르면 2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지만 단기적인 재고 조정이고, 3분기부터는 다시 구매가 재개돼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과두 관계자는 “3분기 중반 이후로 시장의 심각한 침체가 가속되면서 기대했던 신규고객들 역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하반기에 기대했던 매출의 회복 역시 상당기간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분기 최악이 지나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분기부터는 NAND 시장 역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존 고객들 역시 조심스럽게 신제품을 중심으로 발주를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어 “4분기에는 기존 고객사들로부터의 발주가 이미 재개됐고, 다수의 잠재 고객사들과의 납품 협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바, 당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본래 목표했던 성장세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13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다. /뉴시스

연말 주가 흔들리는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대상
부자감세 여론에 완화 어려울 듯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증시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가 연말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10일 “투자자 요구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참고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조정 검토가 기정사실화됐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다. 보유 지분율 기준은 시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이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낮아졌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시절 과세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무산됐다. 작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기준이 10억원까지 낮아지면서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물량을 쏟아내는 일은 연말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가 무산되면서 12월 26, 27일 이틀 동안 개인이 쏟아낸 매물만 2조5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개인의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주가를 흔들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지만 올해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난해 합의가 있었던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격 금지에 이어 총선 용이라는 시각과 함께 ‘부자감세’라는 여론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공매도 금지에 증시 변동성 높아져... 배당주 ‘시들’

KRX 보험지수 이달 2.57% 하락
은행지수 최근 한달 3.08% 내리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은행주·보험주에 대한 관심은 예년보다 시들하다. 공매도 한시적 중단 조치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당주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보험지수는 이달 들어 2.57%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지수를 기록한 건 KRX 보험과 KRX 유틸리티가 유일하다. KRX 은행지수도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작됐던 6일 5.83% 가량

‘반짝’ 오르는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3.77% 떨어졌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3.08% 내렸다.

보험주와 은행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힌다. 연말이 다가오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고요한 모습이다. 공매도 전면 중단 직후였던 7일부터 KB금융(-5.02%), 우리금융지주(-1.35%), 신한지주(-1.93%) 등의 금융주가 하락했으며, 삼성생명·DB손해보험 등 보험주들은 이달 들어서만 각각 3.45%, 3.07%씩 하락했다.

/신하은 기자 godhe@